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개정

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16일 원자력법 및 7월16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25일과 7월30일에 각각, 동법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원자력안전의 날

원자력안전의날 기념식이 9월6일(수) 11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 과학기술부장관 및 원자력관련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의 치사와 유공자포상이 있고 이후 리셉션과 원자력안전 정책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아래 이관 전 과학기술부장관의 “원자력과 국민신뢰”의 특별 강연이 있은 후, 조청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단장의 “국제원자력환경변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한태수 원자력환경기술원장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박찬일 원자력안전위원의 “방사성동원소 이용증대와 안전관리 합리화” 등이 발표된 예정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원자력안전의 날은 과학기술부가 지난 95년 9월 10일을 『원자력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국내외 원자력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있다.

과학기술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설치·운영

과학기술부는 국가방사능방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사능중앙통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통제상황실은 원전등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비상사고 발생시 관련 부처들의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의사결정 등 국가차원의 방사능방재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과천청사 2동 지하에 통제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마치고 8월 20일 2001년도 을지연습시부터 동 상황실을 활용하여 국가비상상황업무와 방사능방재 업무를 수행한다. 동 상황실에는 방재관련 기관간 비상통신시스템이 구축되며 영상장비, 화상회의 시스템 등 하드웨어와 원전의 안전정보 관리 소프트 웨어가 금년 말까지 보완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방사선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전

국 17개 지점의 환경방사선 감시포스트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3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방재체제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시에 통제상황실을 가동하여 훈련진행상황을 총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갑상선 기능검사장치 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인 옥소를 이용해 갑상선의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방사선기기 벤처기업인 세영엔디씨의 장동식 사장은 “99년부터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성과이전 사업 지원을 받아 외제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갑상선기능 검사장치를 개발·시판했다”고 7월31일 밝혔다. 국내에서 갑상선 기능검사장치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장비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갑상선 기능검사장치는 갑상선에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방사성동위원소인 옥소의 섭취율을 감마선 검출기와 신호처리장치로 측정·분석해 갑상선의 기능이상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에는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갑상선 비대, 발육이상, 갑상선 암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사장은 “임상시험결과 개발한 국산 모델이 기존 외국제품에 비해 환자와 검사장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쉬워 사용편의성 면에서 우수했다”

며, “검사장치가 일반 PC용으로 설계돼 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기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갑상선 기능검사장치 개발로 기대되는 수입대체효과는 연 30억원 정도이며, 세영엔디씨 측은 검사장비의 국내 시판은 물론 중국시장으로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장 사장은 “검사장비의 가격은 대당 2천만원선으로 이미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납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